

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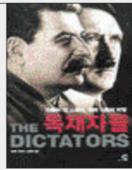
Books



역사상 최악의 '라이벌' 히틀러 VS 스탈린 독재 비밀 공유 '쌍생아'

독재자들

리처드 오버리 지음·조행복 옮김



2차대전 승전의 주인공으로 흔히 루스벨트와 처칠을 꼽는다. 그러나 독일의 승리를 꾀한 것은 다름 아닌 스탈린이다. 2차대전 최대의 전장터는 노르망디나 태평양이 아니다. 바로 소련군과 독일군 1천100만명이 죽어간 러시아 전선이다. 히틀러의 최후 거점 베를린에 연합군 깃발을 꽂은 것도 바로 소련군이다. 그런 점에서 히틀러는 영국과 미국이 아니라 스탈린이 이끄는 소련에 의해 결정타를 맞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역사학자 리처드 오버리(영국 엑스터대학 교수)가 쓴 '독재자들'(The Dictators)은 히틀러와 스탈린의 비교사(史)이자, 두 독재자의 정치적 전과라고 할 수 있다. 타고난 권력욕과 야망, 증오와 광기로 인류사의 한 획을 그은 두 독재자의 삶을 비교하는 것은 이 책을 읽는 재미의 즐거움이다.

비록 승패가 갈렸지만 히틀러와 스탈린에게는 공통점이 많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사회에서 비주류·변방출신의 아웃사이더였다. 히틀러는 독일 본국이 아닌 오스트리아 출신, 스탈린은 러시아의 변방 그루지야 출신이었다. 역전 사투리

에 작은 키, 비호감의 용모도 비슷하다. 반대자를 용납하지 않는 무자비함과 특정 계급·인종에 대한 본능적 증오, 권력에 대한 무한한 집착 등 유사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들의 통치는 폭력으로 얼룩졌다. 살인, 암살, 자살강요는 일상이었고, 강제이주, 수용소 감금 등 모든 형태의 국가테러가 난무했다. 둘은 폭력을 통한 체제의 유지를 신념으로 삼았다. 즉 폭력을 자신들에게 주어진 정치적 사명의 불가피한

변방 출신의 아웃사이더 살인·증오·광기 '닭은꼴' 전쟁관·이데올로기 달라 결국 헤게모니 전쟁으로

귀결로 보았다. 의기양양한 반인도주의자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헤르만 라우슈닝이 히틀러를 가리켜 "증오는 그사람에게 포도주와 같다"고 말한 것은 타당하다. 스탈린은 "인생에서 제일 유쾌한 일은 희생자를 정하고 조심스럽게 공격을 준비하여 강력히 타격한 다음 침대에 누워 편히 자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전쟁을 보는 시각은 달랐다. 히틀러는 전쟁을 간절히 열망했다. 히틀러에게 2차대전은 1차대전 패배에 대한 복수전이자, 제3제국의 영속성과 유대인 불세비키 괴물을 죽이는 길로 생

각했다. 스탈린은 달랐다. 전쟁이 아직 유아기인 사회주의 국가를 파괴하려는 것으로 보고 방어에 전력했다. 공산주의와 파시즘간의 어울리지 않는 조합, 독소불가침조약이 맺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데올로기도 확연히 달랐다. 이 차이가 양자간의 최종적인 헤게모니 전쟁으로 이어졌다. 소련 공산주의는 인류의 진보를 위한 도구라는 대의에서 출발했고, 국가사회주의는 성격상 특정 민족의 진보를 위한 도구였다.

그렇다고 두 독재체제가 국민의 지지없이 탄생·유지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에 의해 출범했다. 사회주의혁명과 1차대전 패전으로 국제사회의 천민 취급을 받은 소련과 독일의 내부적 에너지가 기형적 독재를 가능케 한 것이다.

히틀러는 "역사상 최대의 종교적 정치적 결과를 야기했던 힘은 언제나 연설의 마술같은 힘이 있다"고 말하면서 국민들에게 주술을 걸었다. 히틀러가 자살로 생을 마친 뒤 군수장관이자 심복인 슈페어는 "이제야 주술이 풀렸다. 마법은 끝났다"고 털어놓았다.

전쟁이 종말을 고하고 있던 1945년 2월 스탈린은 "독일인과 함께했다면 우리는 무적이었을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다행히 인류는 이 소름끼치는 양자의 협력에서 벗어났다.

두 독재자의 대척점에 있던 사나이의 삶을 그린 존 미참의 '처칠과 루스벨트'도 일독할 것을 권한다.

〈교양인·4만5천원〉
/오주승 논설위원 jsoh@kwangju.co.kr

'과학, 우주에서 마음...' 4천년의 과학사 답아

세계적인 잡지·미디어 그룹인 '내셔널지오그래픽'이 인류 4천년의 과학사를 '과학, 우주에서 마음까지'에 담았다.

하늘과, 사람의 몸, 물질과 에너지, 생명, 지구와 달, 마음과 행동 등 6개의 테마로 나눠 각 영역에서 이룩한 과학 이론의 발전사를 담았다.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심리학, 뇌과학, 의학 등 거의 모든 과학 분야를 망라했다.

피타고라스와 아르키메데스, 스티븐 호킹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핵심적인 과학자들과 그들의 이론이 소개됐다. 전문 과학지술가들이 다양한 이론의 발전과 변천, 다양한 발명품을 상세히 알려준다.

한 편의 잘 짜여진 다큐멘터리처럼 풍부한 사진과 해설도 곁들였다. 〈지호·2만8천원〉
/김대성기자 bigkim@

이것이 세상이다

피에르 제르마 지음

인터넷 사이트만 뒤적여도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 수 있는 시대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가 소통되는 곳 또한 인터넷이다.

프랑스의 저술가 피에르 제르마가 쓴 '이것이 세상이다'는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것들에 대한 역사를 알기 쉽게 소개한 '지식의 백과 사전'이다.

인류의 궁금증과 호기심이 빚어낸 각종 도구, 관습, 제도, 발명, 탐사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을 사진



인류가 만들어낸 '지식의 백과 사전'

형식으로 담고 있다.

600여페이지에 이르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항목은 모두 416가지다. 케테고리는 '대지와 인간', '관습과 제도', '종교와 기록', '도구와 발명', '탈것과 이동', '음식과 기호', '의복과 꾸밈', '건강과 의학' 등 8개로 분류했다.

'인사이드 기본 전향기'라는 이름으로 불린 초창기 세타키, 프랭클린이 발명한 흔들의자, 알콜중독자 진찰 도구에서 탄생해 음주운전 적발도구가 된 알콜 측정기 등 책에서 다루는 소재는 무궁무진하다. 책은 고대 인류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빵과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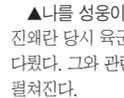
도주에서부터 발명가들의 공동 노력으로 일어난 현대의 TV까지 다양한 발명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리의 역사를 뒤집는 발견과 그 과정 속에 숨겨진 일화, 비밀스런 창의의 과정들이 흥미롭다.

무엇보다 깔끔한 편집과 화려한 도판·사진 자료 등이 돋보인다. 특히 일부 도판들은 때론 글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곁에 두고 몇개씩 읽고 나면 금방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만물박사'가 될 듯하다. 〈하늘엔웃·2만원〉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새책



▲수도원의 비망록=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포루투갈 작가 주제 사라마구를 세계적인 작가 반열에 올린 작품. 인간의 의지는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 18세기 마프라 수도원의 건립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암투와 발타자르와 블리문다의 신비로운 사랑 이야기다. 〈해냄·1만4천800원〉



▲나를 성운이라 부라라 1·2=박상아의 장편 소설. 지옥같은 임진왜란 당시 육군의 명장이었던 고독한 영웅 정기룡 장군의 일생을 다뤘다. 그와 관련한 숨겨진 미스터리의 진실이 생생하고 장엄하게 펼쳐진다. 〈일송북·각권 1만8천원〉



▲생각의 지혜=행복하고 평화롭고 힘찬 삶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불행의 원인을 이해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기쁨과 지혜와 행복을 누리고 성숙한 인격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알려 준다. 제임스 앨런의 대표작 10권을 함께 묶었다. 〈물푸레·2만7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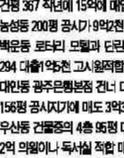
▲말해라 1·2=매년 가장 유력한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거장 조이스 케일 오츠가 미국적 삶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을 감동적인 가족 사사로 풀어냈다. '뉴욕타임스' 선정 주목할만한 한 책, 오프라 윈프리 북 클럽 선정도서다. 〈창비·1만7천원〉



▲회사를 살리는 아이디어 42가지='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1946년 유대계 러시아인 전리히 알트슬러가 창시한 '트리즈'를 토대로 창조적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발명의 원리를 쉽게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1만원〉



▲발명의 화두=공학 연구가 메이 R 베네티바움이 공중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쓴 책이다. 공중을 바라보는 시선을 새롭게 하고 공중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습성과 흥미로운 생물학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 〈효형출판·1만4천원〉



▲마지막 사진 한장=독일 전문 사진작가와 저널리스트가 호스키노 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23인의 환자들을 만난 기록이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 친구들에게 보내는 작별인사로 유럽전역에 '웰 다이잉'(well-dying)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휴먼 다큐멘터리다. 〈웅진지식하우스·1만1천원〉

대인동심일부동산
☎ (대)223-1140, 5210 헬 011-602-2532
(광주은행 신촌점, 대인동 소양서점/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보부동산건설팀
☎ (대)261-8949 헬 011-602-2233
(산수동 543-51(우)문태문근구 심거리)

▶ **쌍말매매**
- 광주 산수동 238-4(대) 1234(대) 20.6㎡ 매대가 8억 5,000만원 (금보 주유소 병행매매) (복합 40.2칸)
- 산수동 238-4(대) 1234(대) 20.6㎡ 매대가 8억 5,000만원 (복합 40.2칸)
- 산수동 238-4(대) 1234(대) 20.6㎡ 매대가 8억 5,000만원 (복합 40.2칸)
- 산수동 238-4(대) 1234(대) 20.6㎡ 매대가 8억 5,000만원 (복합 40.2칸)
- 산수동 238-4(대) 1234(대) 20.6㎡ 매대가 8억 5,000만원 (복합 40.2칸)

▶ **원룸부지매매**
- 광주 산수동 238-4(대) 1234(대) 20.6㎡ 매대가 8억 5,000만원 (복합 40.2칸)
- 산수동 238-4(대) 1234(대) 20.6㎡ 매대가 8억 5,000만원 (복합 40.2칸)
- 산수동 238-4(대) 1234(대) 20.6㎡ 매대가 8억 5,000만원 (복합 40.2칸)
- 산수동 238-4(대) 1234(대) 20.6㎡ 매대가 8억 5,000만원 (복합 40.2칸)
- 산수동 238-4(대) 1234(대) 20.6㎡ 매대가 8억 5,000만원 (복합 40.2칸)

▶ **건물매매**
- 광주 산수동 238-4(대) 1234(대) 20.6㎡ 매대가 8억 5,000만원 (복합 40.2칸)
- 산수동 238-4(대) 1234(대) 20.6㎡ 매대가 8억 5,000만원 (복합 40.2칸)
- 산수동 238-4(대) 1234(대) 20.6㎡ 매대가 8억 5,000만원 (복합 40.2칸)
- 산수동 238-4(대) 1234(대) 20.6㎡ 매대가 8억 5,000만원 (복합 40.2칸)
- 산수동 238-4(대) 1234(대) 20.6㎡ 매대가 8억 5,000만원 (복합 40.2칸)

▶ **고시원 및 원룸주택매매**
- 광주 산수동 238-4(대) 1234(대) 20.6㎡ 매대가 8억 5,000만원 (복합 40.2칸)
- 산수동 238-4(대) 1234(대) 20.6㎡ 매대가 8억 5,000만원 (복합 40.2칸)
- 산수동 238-4(대) 1234(대) 20.6㎡ 매대가 8억 5,000만원 (복합 40.2칸)
- 산수동 238-4(대) 1234(대) 20.6㎡ 매대가 8억 5,000만원 (복합 40.2칸)
- 산수동 238-4(대) 1234(대) 20.6㎡ 매대가 8억 5,000만원 (복합 40.2칸)

▶ **주유소매매**
- 광주 산수동 238-4(대) 1234(대) 20.6㎡ 매대가 8억 5,000만원 (복합 40.2칸)
- 산수동 238-4(대) 1234(대) 20.6㎡ 매대가 8억 5,000만원 (복합 40.2칸)
- 산수동 238-4(대) 1234(대) 20.6㎡ 매대가 8억 5,000만원 (복합 40.2칸)
- 산수동 238-4(대) 1234(대) 20.6㎡ 매대가 8억 5,000만원 (복합 40.2칸)
- 산수동 238-4(대) 1234(대) 20.6㎡ 매대가 8억 5,000만원 (복합 40.2칸)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장흐름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산컨설팅명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매
Tel: 062)973-9174, 016-757-8800

토지구입 **수완지구** **건축상담**

월간지구상업용지
1100평 40억(평당 470만)
200평 22억(평당 1100만)

수완지구개발지
이주지/택지
협약/임대/민간지
생활/대/채권지

신창택지개발지
상업용지 140평 근방 122평 80평

주유소
650평 35억 600평 18억

광프연습장 : 120억

광주지역 녹지
주유소부지 890평 930평
분류/광장부지 2900 2600 4900평
수완동 4차선전 1200평 1800평
복구/분촌동 850평

전용 가능한 금매물
자연녹지 : 3800평-대형차전입가 6차선전
생산지 : 2800평-평등관단인근 특기상업

우량임야
(연수원 복지시설 골프장 축사 등)
2중주거지역 긴급처분
담양 25만평 장성 14만평 보성 9만평
보성 56만평 함평 50만평
투자대리 수익성이 높은
골프연습장 매대가 17억 5천만원

향촌동 260평
2중주거지역 긴급처분
투자유망 평당 450만
화순읍 주거지역 2400여평
공장
하남공단 800평

건물 매도
27억 (보증금 3억5천 월1900만)
19억 (보증금 1억5천 월1300만)
투자가치 최고의 절세형 물건

☎ 광주-장성권 토지·건물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 (0천만원~000억원)
062)973-9177, 010-3625-1362
첨단지구 국민은행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현대공인중개사
☎ (062)371-1900, 헬 010-2006-0115
(삼구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토지매매 **찾는 물건**

● **국가 산단 부근 토지**
(투자 및 전월 주택 용도, 공장부지)
- 광주 경계, 5,561㎡ (약 1,682평)
- 관내지역, 현재 과수원
매대가 2억 3천만원

● **전시장 정비공장부지**
- 광산군 도로변
- 신촌동 주유소지역 대지 337평
평당 200만원

● **캐시타 식당부지**
- 광산군 도로변
- 송정동, 상업지역 대지 294㎡
(89평) 평당 300만원

● **창고 공장부지-벽진동**
- 대지 697㎡ (212평) 매대가 2억5천만원

● **공장 식당 창고 장례식장-매월동 준공예정지**
- 350㎡ 도로변 2,780㎡ (약 840평) 매대가 23억

● **상가부지**
- 송정동, 남구정 인근, 아파트 밀집 지역, 2중 일반지역 257평 매대가 8억

● **나주 남평 관리지역**
- 요양원 공장 불류용
- 한재 동상, 약 5,000평, 매대가 3천만원
상당후 결정, 분할도 가능함

● **논 농지지를 토지**
- 면적: 4,000~5,000평 정도
- 조건: 광우정 인근, 평당 3~4만
● **신산동 임야**
- 나주 다도 불용 남평
- 면적: 200평, 매대가 5~7억
● **보성군 - 알계장**
- 면적: 1만평 대지매대가 2~3억
- 조건: 건축가능하고 민원없이 있는 지역, 가능하면 비다가 보이는 지역

상가 건물 매매

● **매대가 3억5천만원-신수동**
- 지하1층 지상4층, 대출1억5천만원, 보증금 1억2천만원, 월290만원, 4층 주류 분기주

● **매대가 16억원**
- 광산구 우산동
- 010㎡ 단지 앞 5층 건물, 3억5천만원, 월750만원

● **매대가 18억원**
- 남구 분선동 신축건물
- 지하1층 지상4층 보증금 4억 월 680만원 매대가 18억

● **매대가 30억원-첨단지구**
- 5층 건물 보증금 3억 월2,200만원 대출 6억

● **기타 상업용 건물 다수 확보**
모텔/주유소/가든/호텔/고시원/복합/상가건물 매매나 임대

● **건물 신축부지 토지 다수 확보**
공장/창고/병원/전시장/원룸/모텔/가든/대형마트/역세권/전원주택/컨트리/정비공장/기타

금당부동산
☎ (062)223-7400 헬 016-632-5659
(충장로5가 사거리 2층, 금보로 5가와 인터시티내 중간)

매매·교환·개발·건축부동산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

공시가-감정평가 70%이하

- 광장동 111번 대지 1477평 863 평방미터 6억7천 원(3억6600만) 매도 2억9천
- 금보로 대지 237 평 1462 평방미터 4억2천 원
- 남산동 200평 공시 9922만 매도 5억4천
- 북문동 로터리 1100평 대지 2300평 294 대출 9500만 고시율 50% 감가 3억
- 대인동 광우정분동 전대 대지 517평 4층 건물 156평 공시 4억 매도 3억3천
- 우산동 건물동 4층 65평 대지 427000 2000 2억 의왕이나 특사실 적당 매도 3억
- 산안동 4차선도로변 상업지 93평 공시 3억2천 원 캐시타동 2억2천 3500만원
- 서동 대지 467㎡(141평) 건물 170 평방미터 7억 6500 원 매도 1억 3950원
- 함평동 해빈동 영남유원지 2000대 대지 233 평 382 평방미터 매도 5억
- 광산구 우산동 대지 186 평 3254 평방미터 4000만 원 월 400만원 단돈 4000만 매도 9500만
- 백운동 외곽도로 대지 162 평 228 평방미터 4억 동 역할 7억7천 원 매도 4억4천
- 4차선 도로변 1081 평 762 평방미터 21억4천 원 비어있어 2억5천만 10억

감정가 이하

- 조전대 정문 부근 6차선 도로 6층 건물 대지 2377평 648 매도 18억 5천
- 유동 상업지 233평 공시 4억 매도 3억9천
- 서동동 300평 대지 305 평방미터 매도 41억
- 용인동 대지 154 평 750 평방미터 월 1400 지하 1층 일부는 공실 28억
- 호남동 대지 84 평 287 평방미터 고시율 5%

나문평동 방 60평 공시 4억 매도 5억

- 학동 대동동 주유소 대지 348 평방미터 대출 9500만 4억 11% 감가 10% 감가 10% 감가 10%
- 3차선 지하용역 부근 대지 135 평방미터 4층 건물 공시 4억 매도 5억 2천

투자

- 문동동 대지 83평 공시 4억 매도 1억
- 나주시 산포동 산리터 임야 2800평 국유지 487평 대지 300평, 전월주유소 3억 원
- 산안동 무중산 호텔 건물 부근 200평 388 평 사설 복사실 건물 등 적당 1억9천
- 사남동 복사실 건물 등 적당 1억9천
- 산안동 상업지역 1800 평방미터 대출은 2억 4천 원 가능 매도 5억

매도·교환

- 남문동 650평 도로변 3500평 대지 4억 용인동 300평 교환 가능 4억
- 4700 평방미터 12층 54평 1억 4천 원 매도 2천 200만
- 아수시 신촌동 영남유원지 2000대 대지 233 평 382 평방미터 교환 가능 8천 원
- 764 평방미터 교환 가능 8천 원
- 산안동 무중산 호텔 건물 부근 200평 388 평 사설 복사실 건물 등 적당 1억9천
- 산안동 상업지역 1800 평방미터 대출은 2억 4천 원 가능 매도 5억
- 대지 483평 사남동 대지 305 평방미터 대출 41억
- 송정동 대지 154 평 750 평방미터 월 1400 지하 1층 일부는 공실 28억
- 010㎡ 단지 앞 5층 건물 3억5천 원 매도 18억
- 4차선 도로변 1081 평 762 평방미터 21억4천 원 비어있어 2억5천만 10억
- 산안동 상업지 233평 공시 4억 매도 3억9천
- 서동동 300평 대지 305 평방미터 매도 41억
- 용인동 대지 154 평 750 평방미터 월 1400 지하 1층 일부는 공실 28억
- 호남동 대지 84 평 287 평방미터 고시율 5%

이전해 갈 물건

- 송정동 대지 84 평 287 평방미터 고시율 5%